

문화

# 불교 명상음악 작곡 35년 “불법 환희심 오션지에 옮겨”

### 명상음악가 왕준기 교수

작곡가 왕준기 교수(65·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는 오랜 시간 명상음악으로 대중과 만나왔다. 국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해 마음 여행을 이끄는 그의 선율은 일상에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준다. 방송 배경 음악, 가요 작·편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가 명상음악가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이런 편안함을 주는 곡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8월 21일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 평생 음악과 함께 해온 왕 교수의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작곡가 왕준기 교수는 오랜 시간 명상음악으로 대중과 만나왔다. 특히 국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해 마음 여행을 이끄는 그의 선율은 불교음악으로 제작되어 사랑받아 왔다.

유독 스님들과 인연이 많았고 사찰 관련 작업들을 30년 넘게 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명상음악가로 알려졌다고 말한다. 최근 8월 25일 개원법회를 한 법화정사의 법화경 음반 작업도 불가의 인연이 이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법화경 사경·독송기도 등을 통해 포교를 하고 계시는 회주 도림 스님의 뜻에 따라 법화경에 곡을 붙이게 되었어요. 법화경 7만자를 한글로 풀이한 내용을 20장 CD의 배경음악으로 작업했죠. 작업 내내 부처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더없이 큰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이 음반 작업을 계기로 부처님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법화경 7만자 한글풀이 20장 CD로 '신묘장구대다라니'에 곡 붙이기도 예불음악 등 불교음반 40여 장 작업 퇴직 후 청년 위한 불음 포교 '발원'



법상 스님의 독경에 음을 붙인 '신묘장구대다라니' 앨범표지

80년대 후반 한 스님의 불경 낭송음반 작업을 시작으로 명상음악의 포맷을 만들기 시작한 그는 예불음악 국악오케스트라와 합창 제작, 신묘장구대다라니 작곡 및 제작, 월은 스님 말씀 '꿈에 본 극락길' 배경음악 등 40여 매의 불교음반을 작·편곡했다.

“제가 전공은 서양음악인데 중앙대 국악과 박법훈 교수와 친해서 국악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1980년대 후반 ‘더디가는 세월이여’를 작곡하게 됐는데 그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죠. 이 곡은 올해 가사까지 붙여 서예가 조성주 씨의 노래로 재탄생될 만큼 저에게는 뜻 깊은 곡이에요. 아무튼 이 곡을 작곡한 이후부터는 스님들과 연이 닿아 수많은 음반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2002년 일산 덕양선원 법상 스님과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에 곡을 붙이는 색다른 시도를 하기도 했다. “절에서 독경 소리를 들어보면 각 절마다 조금씩 음이 달라요. 하지만 또 공통된 음들이 있죠. 이런 특성들을 살린 음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법상 스님과 함께 작업한 이 음반은 신묘장구대

라니에 음을 붙여 번뇌가 사라진 환희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전통을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오케스트라들이 직접 연주를 할 만큼 음악이 발달했죠. 음반 시장도 어마어마하고요. 하지만 절에서는 법회 때 반복되는 CD를 트는 게 전부예요. 그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양주 석굴암 주지 스님의 도움을 받아 찬불가 12곡과 예불 의식을 음반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들이 널리 보급이 안 되는 것은 불교계 자체에서 이를 발전시킬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 같아요. 저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불교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야 젊은 사람들도 절에 오고 불교도 발전하죠.

등불, 달무리 등으로 유명한 1970년대 인기그룹 영사운드 멤버로 대중음악을 시작한 그는 이후 방송 음악 작곡, 가요 편곡 등 수많은 작업을 해왔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음악 중에 KBS 스포츠 중계 시그널 음악이 있을 겁니다. ‘두구두구두구~’로 시작하는 이 음악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등을 통해 스포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작업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다큐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의 배경음악도 작곡을 해서 국제대회 상을 받기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하다보니 제가 뭘 했는지조차 모를 때도 많습니 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그는 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퇴직을 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불교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 “사실 불교음반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법화정사 법화경 음반 작업을 하면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화정사에서 청년합창단을 창단해 젊은 불자들이 위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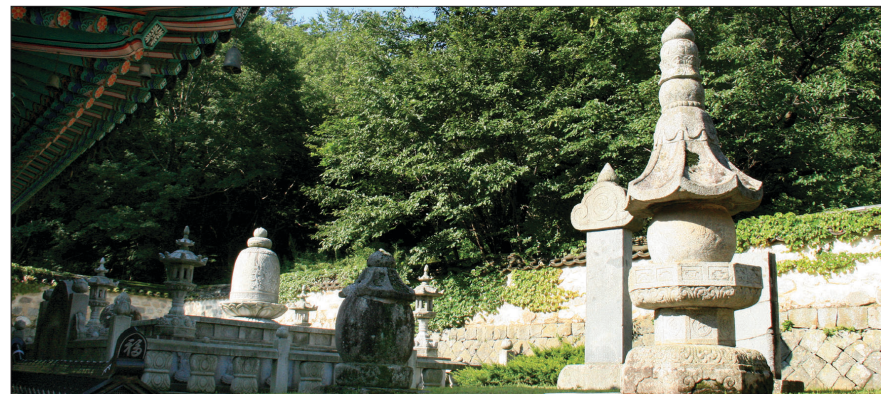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오늘 만나질 무얼 그리 바랬나?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㉟ 건봉사 ㉠



조선 선비들은 관동팔경과 금강산 유람을 하며 건봉사를 지나다냈기에 건봉사를 주제로 한 시를 남기곤 했다. 건봉사 적멸보궁에 세워진 부처님 치아사리탑

염불만일회의 도량

건봉사(乾鳳寺)는 신라고찰이다. 아도 화상이 처음 절을 짓고 원각사라 이름 지은 것이 건봉사 역사의 시작이다. 758년(경덕왕 17)에 발징(發徵)화상이 중건하고 정신(眞信) 양순(良順) 스님 등과 함께 염불만일회를 결사하면서 절의 면모가 일신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는 규모가 대단히 커서 스님 31명과 재가불자 1820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건봉사는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 동안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에 갇혀 있었으며 1989년 이후 출입이 허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찾아 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면서 건봉사는 다시 사적이 확장 되었다. 1802년(순조2)부터 32년간 지속된 제2차 염불만일회를 통해 다시 정토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나 거듭되는 화재로 절의 규모는 확장되지 못했다. 건봉사는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 동안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에 갇혀 있었으며 1989년 이후 출입이 허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건봉사는 염불만일회라는 거대한 염불결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불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찰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위치가 강원도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조선 선비들의 경우 관동팔경과 금강산 유람을 하며 건봉사를 지나다냈으므로 건봉사를 주제로 한 시를 남기곤 했다. 그래서 건봉사를 주제로 한 시편들의 대부분이 고찰의 경치나 역사유적을 읊은 것이다.

노승행주지고암(老僧行住只孤菴)  
미대산광어대담(眉帶山光語帶巒)  
금일위수망반일(今日爲誰忙半日)  
백두정절배심참(白頭旣節倍心慙)

노승이 머무는 곳다만 외로운 암자  
눈썹은 산빛, 말쑥은 아지랑이를 두른 듯  
오늘 만나질 무얼 그리 바랬나?  
흰머리 절도사 노릇 부끄러운 맘 더하네.

이명환(李明漢 1595~1645)은 1639년에 강원 관찰사에 제수되고 이듬해 금강산을 유람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건봉사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제목은 ‘관해의 운을 빌어 건봉사 노승에게 주다 [次觀海韻 贈乾鳳老僧]’. 이명환의 문집 <백주집(白州集)> 제4권에 실려 있다. 관해의 운을 빌었다는 것은 관해(觀海) 이민구(李敏求 1589~1670)가 금강산 유람을 하며 지은 <동유록(東遊錄)>에 실린 시 ‘모우하유정 증동행승(冒雨下楡亭 贈同

行僧)의 운자를 빌어다 썼다는 의미다.

시에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건봉사 암자의 노승이고 한 사람은 시를 짓는 이명환 자신이다. 첫 구절의 외로운 암자는 건봉사에 소속된 암자이거나 독립된 스님의 거처를 의미한다. 이 고요한 산사에 당도한 시인은 비록 절도사의 신분이지만, 무상한 인생을 놓고 보면 한 것 증생에 불과하다.

고요한 암자에 거처하는 노승은 눈썹이 산빛을 닮아 있고 말쑥하며 아지랑이처럼 신비롭다. 초세간적 공간에서 만난 출세간의 풍모를 보는 시인은 허망한 세속의 일로 분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산사라는 공간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 자체로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동남월출해운심(東南月出海雲深)  
고사삼송협로음(古寺杉松夾路陰)  
오여노승동불매(吾與老僧同不寐)  
불전잔촉조고음(佛前殘燭照孤吟)

동남쪽달 떠오른 구름 깎아  
고찰의 삼나무 소나무에 그늘져 좁은 길  
이 몸과 노승은 함께 잠 못 이루고  
부처님 앞 촛불 외로운 울조림 비추네.

이 역시 이명환의 시인데 앞의 시와 같은 때에 건봉사에서 쓴 것이다. 제목은 ‘건봉사 문상인의 시축에 쓰다(乾鳳寺 書文上人軸)’이다. 앞의 시가 건봉사에 도착하여 풍경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술화한 것이라면, 이 시는 늦은 밤이 시간적 인 무대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외로움을 생의 무상함에 담아내고 있다.

첫 구와 둘째 구에서 묘사되는 달이 뜬 산사와 구름 깎아 바다, 무성한 삼나무 소나무 그늘로 인해 좁아져 보이는 길의 대비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애환을 닮아

있다. 그리하여 자신도 노승도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심경은 결국에서 극에 달해 고독과 근심을 타고 남은 촛불(殘燭)과 외로운 신음소리(孤吟)로 일체화 하고 있다. 시인은 건봉사에서 하루를 묵으며 벼슬살이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듯하다.

무상 일개우는 물소리 바람소리  
이인엽(李寅燁 1656~1710)의 경우도 금강산을 유람하는 길에 건봉사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시를 남겼다. 그는 36세 되던 해(1691년) 가을에 건봉사를 거쳐 금강산을 유람하고 12월에 전라도로 암행어사를 제수 받았다고 한다.

아숙백운사(夜宿白雲寺)  
한종시자면(寒鍾時自鳴)  
전일유간고(殿鐘幽澗古)  
월도상방명(月到上方明)  
산취의삼운(山翠衣衫澗)  
풍천침정청(風泉枕靜淸)  
고등급불매(燈燈級不寐)  
만예정추성(萬壑聽秋聲)

잠든 산사에 흰 구름 떠 있고  
차가운 종소리 때 되어 절로 우네.  
전각에 일한 옛 골짜기 그윽하고  
달은 높이 떠올라 밝구나.  
적삼에 젖어드는 푸른 산  
대자리에 누워 바람 소리 물소리 들네.  
외로운 등불에 잠들지 못하는데  
계곡가득 가을소리 들리네.

이인엽의 문집 <회화시고(晦齋詩稿)>에 실린 이 시도 가을밤의 고즈넉한 건봉사 풍경과 그 속에서 세간의 덧없음을 느끼는 선비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 산사는 그 풍경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인가 보다.

##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병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전임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부산역 상담센터  
문의 : 1899-8108. 010-9229-3801